

정부,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 건립 추진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어찌하라고...

기능·역할 겹쳐 효과 반감

정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기능·역할이 겹치게 될 ‘아세안문화원’을 부산에 건립하기로 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정책을 상징하는 문화전당의 건립효과를 반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12일)에 앞서 10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아세안문화원 건립 ▲한·아세안 비즈니스협회 출범 ▲한국방문 비자 간소화 및 차세대 유력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아세안 경제 성장의 기초를 이루는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아세안의 눈부신 문화를 한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아세안문화원을 한국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아세안문화원의 건립대상지를 부산으로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문화원 개원에 필요한 총예산을 100억원, 연간 운영유지비로 2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1983㎡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립될 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상설 전시관, 강의실, 도서관, 인포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2016년 전시물품 등을 확보, 2017년 문화원을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세안문화원은 장기적으로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문화원이 건립되면 문화전당의



한겨울, 묵향에 빠지다

‘동장군’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서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호고속의 서예 동호회 ‘금묵화’의 한 회원이 바깥 날씨는 잊은 채 서예에 심취해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교류 파트너를 부산에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세안문화원이 문화교류의 타킷으로 정한 아세안 10개국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는 핵심 교류 대상권역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로 정하고 공을 들여왔다. 10여년간 한·아세안 문화장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광주에서 개최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구체적으로 아세안문화원 상설전시관

의 기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보원 사업영역과 겹친다. 정보원은 아시아문화를 수집·연구·전시하는 기능을 하는 문화전당의 핵심기관이다.

예산 부문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국가 문화원조 사업(ODA) 부문 예산이 전액 문화전당으로 배정되지 않고 아세안문화원에 분산 지원될 수도 있어서다.

부산의 도시브랜드나 관광·문화 인프라

의 파괴력을 감안할 때 아세안문화원이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육성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을 위협하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기훈 문화도시협의회 상임이사는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상징공간인 문화전당의 건립효과를 반감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죽산보 때문에 침수...나주 농경지 보상·객토

4대강 인공보 첫 보상 결정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영산강 죽산보의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과 관련, 농경지 침수 피해를 호소한 농가들에 대해 피해보상과 농경지 객토사업이 시행된다. 이는 인공보 때문에 발생한 환경

경피해에 대한 정부의 ‘첫 보상 결정’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0일 ‘죽산보 지하수 영향 해소대책사업’이 2015년 벼농사 시작 전인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소대책은 농경지 침수피해 보상과 피해 방지를 위해 눈에 흙을 쌓는 것이

다. 익산청은 이를 위해 영농피해 보상비 11억원을 포함, 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나주시 다시민 가흥리 일대 주민들이 수령한 민원을 제기한 지 2년만의 조치다.

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이 사업은 나주시 다시민 가흥리 일대 저지대 농경지 40.7ha에 대한 객토와 지하수 상시 배출관·연결수로·배수로 신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알립니다

한국문단의 새 이름, 당신이 주인공

2015 광주일보 신춘문예 내달 15일까지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경쟁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14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0 광주시 동구 급남대 238 무등빌딩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062-220-0624)

■ 기타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겉봉투에 붉은 글씨로 신춘문예 응모와 응모분야를 기입하고

원고 낱장에 필명·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함께 보내주시요.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당선작은 2015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정당”

광주시, 맥쿼리 상대 행정심판 승소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월 IC 5.67km) 운영 민간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투자자에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시는 10일 “광주순환도로에 100% 출자한 맥쿼리인프라펀드(이하 맥쿼리)가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행정심판 승소로 민간사업자의 자본금(2012년 말 현재 543억원)과 차입금(268억원)이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853억원)가 소멸할 때까지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미지급중인 재정지원금은 414억원이며, 계약 종료기간인 2028년까지 발생할 추가 지원금은 무려 503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맥쿼리측이 행정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며,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2월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으며 맥쿼리측은 이에 반발, 6월 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자본구조를 적자 상태로 왜곡, 변경한 뒤 지원받은 보조금을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민간투자법과 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광주시는 2011년 10월 맥쿼리측에 광주 순환도로투자자의 자본구조를 현재 6.93%에서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29.92%)로 복구하도록 감독 명령했으며, 맥쿼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맥쿼리측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농어촌공사 지역출신 15% 채용 ▶8면



나의 취향에 맞춘 단 하나를 찾다.
The New A-Class



Mercedes-Benz